창간 50 불교신문 1960년 1월1일

2010년 10월 27일 수요일

佛敎新聞

주2회 발행 대표전화 (02)730-4488

ibulgyo.com

불기 2554년(단기 4343년) 음력 9월20일 제2666호

www.GungPlant.co.kr
시원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진료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조계사 앞 사거리,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앞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0-중-1905호

수행연금·공간 보장 승려복지법 입법예고

조계종, "수행·포교 전념케 할 제도적 장치"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8일 스님들의 노후 복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승려복지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문 www.ibulgyo.com 참조〉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종단과 (해당) 교구가 스님들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승려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교구나 사찰에 대해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담기구인 승려복지회의 구성과 수행연금, 보건·의료보장, 주거 및 수행보장에 관한 사항을 5장 29개조와 부칙 2개조로 된 승려복지법 제정안에 담았다. 우선 세수 65세 이상으로 결계신고를 필한 조계종 스님 가운데 소득이 없거나 소임이 없을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승려복지법에 따르면 수행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행연금의 세부적인 지급방식은 종령으로 정하며, 법납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된다. 지급액은 종단 재정운영 현황과 국가에서 공표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승려복지회가 금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보건·의료에 대해서도 의료비·요양비 등을 의료급여 형태로 지급한다. 승려복지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급여 지급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승려복지법에 따르면 조계종 스님들은 국가의 공적 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소요 비용은 재적승을 기준으로 해당교구에서 부담하되,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스님들이 노후에 주석할 수 있는 수행공간도 보장한다. 분한신고를 필한 세수 65세 이상의 노스님들을 위해 종단 또는 본사에서 승려노후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설을 건립하는 교구에 대해서는 분담금 감면, 인사 우대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승려복지회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산하에 설치한다. 중앙에 설치되는 승려복지회의는 승려복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되며, 총무원 총무부가 관리·감독한다. 교구에서는 '교구복지회'를 구성해 승려복지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다.

2면에 계속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社告

미얀마 가정에 '희망의 불빛'을

사단법인 더프라미스와 불교신문사는 전기가 없는 낙후된 농촌 지역인 미얀마 오보, 레바도 마을에 친환경 태양열 전등 지원 사업 '희망의 불빛' 모금캠페인을 펼칩니다. '희망의 불빛'은 태양열 전등 설치부터 1년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3만원이면 미얀마 가정에 희망의 불빛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모아 2010년 12월, 350가구에 태양열 전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얀마 아이들이 해가 저물어도 공부할 수 있도록 불자 여러분의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주 최 : 불교신문사,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 주 관 :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 기 간 : 2010년 9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 목 표 액 : 1500만원
- 후원방법 : 3만원 - 1가정 태양열 전등 1개 후원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3501-04-155241(예금주 :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 문 의 : 더프라미스 (02)735-3119(기부상담 문의), 불교신문사 (02)730-4488

제1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3국 참가자 500여명은 지난 19일 세계평화기원법회 봉행에 앞서 영산 범궁 광장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동북아·세계 평화 위해 공동노력"

제13차 한중일 불교대회 500여명 참석 '공동선언' 채택

법요식 국제학술회의 등 성황…14차 대회는 한국서 개최

한국 중국 일본 3국 불교계가 동북아시아와 지구촌 평화를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중국 쑤저우성(江蘇省) 우시시(無錫市) 영산 범궁에서 열린 제1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 참석한 500여 명의 3국 불교계 지도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중일 3국 불교계는 "불교 정신에 입각해 지속적인 교류를 전개하는 한편 세계평화를 위해 공동노력하자"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3국 불교계의 이 같은 공동선언은 센카쿠 열도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중일관계와 천안함 사태 이후 긴장관계가 조성된 남북관계를 해빙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은 19일 세계평화법요식에서 "한중일이 위치한 동북아 지역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긴장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중일 3국 불자들은 부처님 자비의 가르침과 생명존중 사상에서 해답을 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계평화기원 메시지를 전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용싱(永信) 스님과 일중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고바야시쥰쇼 등 3국 불교대표들도 동북아 긴장해소와 세계평화에 불교도가 공동 노력하자는 공감대를 표시했다.

한중일 불교대회는 세계평화기원법요식과 국제학술회의를 비롯해 교류위원회 회의, 환영·환송만찬,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19일 우시시(無錫市) 영산 범궁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원철스님은 '한류(韓流) 중류(中流) 일류(日流) 그리고 불류(佛流)'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중일 3국의 동질성의 저변에는 불교가 있으며, 동아시아의 문화적 지역적 통합의 힘은 불류(佛流)에서 나왔다"고 강조하면서 3국 불교 교류 확대 방안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제1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는 2011년 4월11일부터 3일간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 한국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을 비롯한 14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중일 대회 공식일정을 마친 총무원장 스님은 19일부터 이틀간 상하이시(上海市)를 방문해 세계박람회 한국관, 위포스(玉佛寺), 용화정사 등을 돌아보았다.

▶ 관련기사 3면

중국 우시·상하이=이성수 기자

대덕·혜덕, 중덕·정덕 법계 11월 17일 조계사서 품서식

법계 품서식이 봉행된다. 조계종 계단위원회(위원장 고산스님)는 오는 11월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덕·혜덕-중덕·정덕' 법계 품서식을 거행한다.

법계법 제9조, 제11조에 의거해 봉행되는 법계 품서식은 대덕·혜덕은 17일 오전11시, 중덕·정덕은 오후1시에 실시된다.

대덕·혜덕은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비구·비구니 스님이고, 중덕·정덕은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품서 받을 수 있다. 준비물은 가사, 장삼, 자필유언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원본1부)이며, 승려법 제30조 2항에 따라 법계 품수시 자필유언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불교역사자료 모으기 운동

단 한 장의 기록도 불교의 역사입니다

우리 사찰과 큰 스님의 유업에 남아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구전승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대상 : 〈문서기록〉〈사진, 녹음테이프〉〈큰스님유품 및 박물류〉〈봉축 관련 사진과 기록〉 등….

▮ 문의 : 중앙기록관 (02)2011-1712
E-mail : park5149@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불교신문사

광주 동성고 수학여행 대신 '템플스테이'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가 매년 실시하는 수학여행을 사찰체험으로 대체해 화제다. 광주 동성고(교장 이상선) 1학년 학생 300여 명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예산 수덕사와 공주 마곡사, 서산 부석사, 진천 보탑사 등지에서 2개반씩 나눠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수덕사 템플스테이에서는 77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108배를 하며 소원염주꿰기와 달빛참선, 발우공양, 탑돌이, 〈부모은중경〉 강의, 문화유적순례 등을 하면서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수년째 제주도로 관광위주의 수학여행을 다녀오던 동성고는 농촌체험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병영체험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예절교육과 사찰체험 2가지를 놓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찰체험으로 수학여행을 대체하게 됐다.

1학년 교육부장 윤선호 교사는 "학생들이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놀이문화 위주의 수학여행보다는 사찰체험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등학교 때의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대학에서도 학생선발 시에 체험학습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찰체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시영 충남지사장 lsy@ibulgyo.com

'자살! 이대로 좋은가' 포교종책 연찬회 6면

경기도의회 불자회 22일 '출범' 12면

법난의 상처를 딛고 불교중흥, 사회통합의 길로 나갑시다.

-10·27법난 30주년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

10·27법난은 국가권력이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해 불교계의 권리와 명예를 유린하고 종교에 대한 자유보장과 차별금지, 정교분리의 원칙이 명시된 헌법을 파괴한 사건으로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하여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 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하는 등 불교계를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삼았던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불교계는 종교적 존엄과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수행자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그 위의가 심대히 실추되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언론에 의해 마치 불교계가 부정부패로 얼룩진 것처럼 보도된 결과로 빚어진 불교계에 대한 불신은 지금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천만 불자여러분!

10·27법난은 국가권력의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해 전국사찰이 계엄군의 군홧발에 유린당한 날이며, 우리 불교계가 탄압받은 한국 현대사에 유례없는 비극적 사건입니다.

우리 불교계는 지난 폭압적이고 공포적인 정치상황에서도 10·27법난에 따른 불교계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당시의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불자와 스님들이 국가폭력에 항거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교계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10·27법난에 대한 책임 당사자인 정부의 태도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국방부 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2008년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7법난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종도 여러분!

10·27법난에 따른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정법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정의가 정착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참회와 용서를 통한 원융회통의 불교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며, 우리사회의 종교 자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며, 과거사 청산을 통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종교의 명예 및 존엄성을 회복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10·27법난에 대한 정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10·27법난이 단지 한 종교의 과거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 세대의 역사의식 정립과 정의 실현의 기준이 되도록 정확한 기록이 보존관리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해자는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피해자는 자비를 베풀어 국민화합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교계는 10·27법난이라는 과거사의 비극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슬픔을 달래면서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데 모든 민주주의 역량을 다 할 것입니다. 과거의 성찰로부터 얻어진 교훈은 국가 선진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 찾기에 명쾌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기2554(2010)년 10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